

24장 - 왕 되신 주

- (1) 왕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하도다
- (2)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 (3)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74장 - 오 만세 반석이신

- (1)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 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 주시네
- (2)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의 꽃송이 같도다
풀 위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 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 (3) 한 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 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2월 23일(금) 기도 담당 : 최길선 집사

2018년 2월 22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4장 다 같 이
기 도 한상욱 집사
성 경 봉 독 창 1:24~31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나는 누구인가?』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7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20일(화)	창 1:1~2	세상의 기원, 하나님
2월 21일(수)	창 1:3~23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2월 22일(목)	창 1:24~31	나는 누구인가?
2월 23일(금)	창 2:1~17	인간, 하나님의 대모험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 2018. 02. 22(목)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새 날을 허락해주시고 오늘도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주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지난 세월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선교 많이 하고, 예루살렘교회처럼 이 땅의 본이 되는 어머니 교회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충만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님께 언제나 새 힘을 더하여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꿈꾸며 기도하는 목회계획이 새문안에 잘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새성전건축과 영장리 추모관 공사에도 주의 손으로 도우시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복음 전하는 선교 강국 되게 하시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핵의 위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메아리가 들려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병상에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